

## 커플 관계에서의 공감: 이차간 공감 척도의 타당도 연구\*

이 주 열

가천대학교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 영 호<sup>†</sup>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커플 관계에서의 공감을 측정하기 위한 이차간 공감 척도(dyadic empathic scale)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해외의 커플용 대인관계반응 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for Couples: IRIC)를 국내 번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기보고 방식(IRIC self-reported: IRICS)과 파트너평정 방식(IRIC Other-rating: IRICO)을 함께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IRIC가 가진 제한점을 보완하고 커플의 행위자 효과(actor effect)와 파트너 효과(partner effect)를 동시에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인 및 부부를 대상으로 커플적응 척도(Dyadic Adjustment Scale), 대인관계반응 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커플용 대인관계반응 척도-자기보고 방식(IRICS), 커플용 대인관계반응 척도-파트너평정 방식(IRICO)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295쌍(590명)의 쌍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IRICS와 IRICO 모두 안정적인 2요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남-녀 집단 및 부부-연인 집단에게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여주었으며, 수렴 및 변별 타당도, 공시타당도, 증분타당도가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커플 관계 속 공감 격차(empathy gap) 및 남녀의 공감 양상의 차이를 논의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공감, 이차간 공감, 커플, 쌍자료, 행위자 효과, 파트너 효과, 신뢰도, 타당도

\* 본 연구는 제 2저자의 지도를 받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정리한 것임.

† 교신저자 : 이영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Tel : 02-2164-4276, E-mail : yhlee@catholic.ac.kr

공감(empathy)은 '타인의 감정, 사고, 태도에 대한 지적인 동일시(인지적 과정) 및 대리적 경험(정서적 과정)'으로(Davis, 1980; Hoffman, 1984), 기본적으로 '타인'을 전제로 한다. 공감은 태생적으로 대인관계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공감이 부부, 연인과 같은 커플 관계를 비롯해 다양한 대인관계 장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해볼 수 있다. 실제 커플 관계와 공감의 관련성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대체로 공감이 건강한 커플 관계에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Markman & Notarius, 1987; Simpson, Orina, & Ickes, 2003). 공감은 관계만족도(Davis & Oathout, 1987; Long, Angera, Carter, Nakamoto, & Kalso, 1999)를 비롯해 성적 만족도(Larson, Anderson, Holman, & Niemann, 1998), 파트너의 행동에 대한 용서(Palleari, Regalia, & Fincham, 2005)와는 정적 관련성을 보였으며, 이혼 예상(Long, 1993a)과는 부적 관련성이 나타났다. 국내연구 중 다수도 공감이 커플 관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지지하고 있다(김현주, 안현의, 2009; 정경아, 김봉환, 2010). 공감을 통한 부부치료 및 부부교육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배우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증진시킬 경우 공격성 등 부정적 정서가 감소하고 의사소통이나 친밀감, 결혼적응 및 결혼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진, 2005; 송정아, 1994; 최혜영, 노치영, 박의순, 1994). 그러나 커플 관계 속에서 공감을 어떻게 측정해야 할지(Pistrang, Picciotto, & Barker, 2001; Trommsdorf & John, 1992), 커플 관계 속에서 공감이 어떻게 발현되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Gilhotra, 1993; Gottman, 1999)는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커플 관계 속에서 공감을 연구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 중 하나는 '과연 커플 관계 속에서 공감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이며, 이는 '일반적 공감(general empathy)'과 '이차간 공감(dyadic empathy)'을 구분하는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일반적 공감은 '일반적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현되는 전반적인 공감 성향을 의미하는 반면, 이차간 공감은 '커플 관계 속에서 파트너를 대상으로 발현되는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공감 성향을 의미한다(Long, 1990). 즉, 일반적 공감과 이차간 공감은 주체(agency)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공감의 객체(subject)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전자는 일반적인 타인, 즉 불특정 다수를 공감의 대상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배우자나 연인과 같이 커플 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공감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차간 공감이 아닌 일반적 공감을 측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커플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김현주, 안현의, 2009; 김희진, 2005; 송정아, 1994; 정경아, 김봉환, 2010; 최혜영, 노치영, 박의순, 1994). 그러나 커플 관계는 여타 일반적인 관계보다 더욱 밀착되고 친밀한 관계로 공감의 대상이 상대 파트너로 구체화/특정화되어 있으며 얼마나 공감하고 공감 받는지에 따라 상호작용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일반적 공감을 통해 커플의 공감을 탐색한다면 그 과정에서 소실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커플의 공감 양상을 잘못 파악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커플 관계를 예측하는데 있어 일반적 공감과 이차간 공감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서로 다른 기제로 작용할 수 있

음이 제기되어 왔다(Long, 1990). 일반적 공감과 이자간 공감은 모두 커플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두 개념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으며 각각 커플의 관계만족도에 기여하는 바가 개별적으로 구분되었다(Long, 1993b; Long & Andrews, 1990; Péloquin & Lafontaine, 2010; Rusbult, Verette, Whitney, Slovik, & Lipkus, 1991). Birchler와 Weiss, Vincent(1975)는 불화를 겪는 커플과 그렇지 않은 커플을 대상으로 낮은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였으며, 그 결과 두 조건의 커플 모두 자신의 파트너보다 낮은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경우 더 긍정적인 양상을 보였다. 개인이 '공감'이란 대인관계 기술(skill)을 보유하고 있다하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이를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에게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사회적 상황에 비해 오히려 커플 관계 속에서 더 공감적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Pistrang et al., 2001). 따라서 일반적 공감과 이자간 공감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며 서로 구분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커플의 공감을 측정하는데 있어 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점은 2인으로 구성된 양자(兩者) 관계 속에서 한 개인은 공감의 '주체'인 동시에 공감의 '객체'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 개인에게 자기보고(self-reported)와 파트너 평정(other-rating) 점수를 함께 보고하도록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커플 양자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한다면 상호간 평가까지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심리측정적 관점을 '쌍자료(dyadic data)'라고 한다(John & Robins, 1994; Murray, Holmes, & Griffin, 1996; Thomas, Fletcher, & Lange, 1997). 예를 들어, 한 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면, 개인에게 '본인이 상대 파트너를

얼마나 공감하는지' 보고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상대 배우자에게 얼마나 공감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평정하게 할 수 있다. 한 개인의 공감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는 자기보고 방식의 '자신의 공감 수준'과 파트너평정 방식의 '지각된 상대 배우자의 공감 수준' 2가지가 만들어지며 한 부부의 공감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는 총 4가지<sup>1)</sup>가 생성된다.

쌍자료는 커플 관계와 같은 양자 관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탐색할 수 있게 해주며, 그 결과 연구적으로나 임상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더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쌍자료는 '행위자 효과(actor effect)'뿐만 아니라 '파트너 효과(partner effect)'가 동시에 분석이 가능하다(Kenny, Kashy, & Cook, 2006). 여기서 행위자 효과는 A와 관련된 변인이 A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며 파트너 효과는 A와 관련된 변인이 상대 파트너인 B에게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부부를 대상으로 공감이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경우, 남편의 공감 수준이 남편 본인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행위자 효과에, 상대 파트너인 아내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파트너 효과에 해당한다. 파트너 효과는 커플과 같은 상호교류적 관계 속에서만 측정이 가능하며, 이러한 파트너 효과를 통해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상호작용적 차원의 정보 탐색이 가능해진다.

둘째, 쌍자료는 자기보고 방식과 파트너 평정을 동시에 시도하기 때문에 자기보고 측정이 가진 한계점에 대한 적절한 보완/대안책이

1) 남편이 보고한 남편의 공감 수준 + 남편이 보고한 아내의 공감 수준 + 아내가 보고한 아내의 공감 수준 + 아내가 보고한 남편의 공감 수준

될 수 있다. 자기보고 지표만을 측정할 경우, 해당 지표가 가장 중요하고 신뢰로우며 타당한 측정이라는 가정을 할 수밖에 없어진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이나 성격, 매력, 대인관계, 건강과 관련해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하는 상황에서는 주변 지인이나 친구 같은 신뢰로운 평정자의 평정에 비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방어적 경향이 다수의 연구를 통해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다(Bailey & Kelly, 1984; John & Robins, 1994; Rusbult, Lange, Wildschut, Yovetich, & Verette, 2000; Taylor & Brown, 1988). 일반적으로 긍정적 측면으로 인식되는 공감 역시 이러한 자기보고 방식의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커플 관계를 다룬 일부 해외 연구에는 파트너에 대한 지각을 중요한 변인으로 주목하였다(Fincham, Beach, & Baucom, 1987; Gottman, 1999). 커플 관계와 파트너의 지각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수의 연구에서 자기보고 지표보다 파트너의 지각을 반영한 지표가 커플의 만족도나 안정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usby, Holman, & Taniguchi, 2001; Miczo, Sergin, & Allspach, 2001; Saffrey, Bartholomew, Scharfe, Henderson, & Koopman, 2003). 더 나아가 자기보고와 파트너의 지각 간 격차는 커플의 상호작용을 탐색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Loewenstein(1996)은 개인이 배고픔, 통증과 같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타인의 평정에 비해 더 높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공감 격차(empathy gap)’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후 다수의 연구자가 성적 각성(Ariely & Loewenstein, 2006), 배고픔(Nordgren, van Harreveld, & van der Pligt, 2009), 공포(Van Boven, Loewenstein, & Dunning, 2005), 신체적 고통(Hodgkins, Albert, & Daltroy,

1985; Kappesser, Williams, & Prkachin, 2006), 사회적 고통(Nordgren, Banas, & MacDonald, 2011)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해서 공감 격차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공감 격차가 개인과 타인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감정교류를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Loewenstein, 2005; Nordgren et al., 2011). 커플 관계는 더욱 친밀하고 밀착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감 격차가 두 사람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커플 관계 속 이자간 공감이 일반적 공감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실험 패러다임을 통해 ‘공감 정확성’(empathic accuracy)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며(Ickes, 2001), 커플을 대상으로 특정 상황을 조작하고 상대 파트너의 사고나 정서에 대한 추론이 얼마나 정확한지 측정하는 비교적 일관된 방식을 보여준다(Kilpatrick, Bissonnette, & Rusbult, 2002; Simpson, Ickes, & Blackstone, 1995). 해당 연구자들은 높은 생태학적 타당도를 바탕으로 커플의 공감이 가지고 있는 상호작용적이고 상대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성별, 성역할, 주변 상황, 동기 수준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커플의 공감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Ickes, Gesn, & Graham, 2000; Ickes, Stinson, & Bissonnette, 1990; Klein & Hodges, 2001). 그러나 커플의 공감 과정은 공감 정확성뿐만 아니라 공감적 표현 및 행동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공감의 상대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체로 특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가정/조작하고 있기에 해당 연구 결과를 쉽게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른 연구자들은 일반적 공감과 마찬가지로 이자간 공감이 가진 기질적, 성격적 측면에 주목하였으며 주로 설문 방식을 통해 파트너에 대한 ‘이자간 공감’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자간 공감의 상태적/상황적 요인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실제 커플 관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질적이고 성격적인 요인임을 가정한 것이다. Long과 Andrews(1990)는 Self Dyadic Perspective-Taking Scale 및 Other Dyadic Perspective-Taking Scale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커플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파트너의 관점을 취하는지’, ‘파트너가 얼마나 자신의 관점을 취한다고 느끼는지’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두 척도는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였으며 일반적 상황의 관점취하기(general perspective taking)와 구분되어 커플의 관계만족도를 고유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감이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다차원적 개념이라는 최근 연구자들의 합의에 근거할 때(Davis, 1980; Hoffman, 1984) 해당 척도는 관점취하기, 즉 공감의 인지적 측면으로 정보가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Pélouquin과 Lafontaine(2010)는 기존의 공감 척도 중 신뢰도와 타당도를 인정받고 있고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모두 고려한 대인관계반응 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기반으로 커플용 대인관계반응 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for Couples: IRIC)를 개발하였다. 해당 척도는 여러 표본 집단에서 적정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나타냈으며, 이자간 공감의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각각 반영하는 ‘이자간 공감적 관심’(Dyadic Empathic Concern)과 ‘이자간 관점 취하기’(Dyadic Perspective Taking) 요인이 구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Pélouquin과

Lafontaine는 IRIC 개발 과정에서 IRI와 동일하게 자기보고 방식만을 적용함으로써 개인의 방어적 성향에 취약하고 커플의 상호교류적 측면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커플 관계의 공감을 측정하기 위한 이자간 공감 척도를 제안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Pélouquin과 Lafontaine의 IRIC를 국내 번안하는 과정에서 커플을 대상으로 쌍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자기보고 방식(IRIC Self-reported version: IRICS)과 파트너평정 방식(IRIC Other-rating version: IRICO)을 개별적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 방 법

### 측정 도구

#### 커플 적응 척도(Dyadic Adjustment Scale: DAS).

DAS는 Spanier(1976)가 부부 사이의 관계만족도나 적응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가중치가 다른 32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문항에 따라 0에서 4~6까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민식과 김중술(1996)이 우리말로 번안한 것을 조현 및 최승미, 오현주, 권정혜(2011)가 10문항으로 축약한 단축형 DAS-10 척도를 사용하였다. DAS-10의 점수 범위는 0~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만족도나 적응 상태가 더 양호함을 의미한다. 조현 등(2011)의 연구에 따르면, DAS-10 척도는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Cronbach's  $\alpha=.83$ )를 갖추고 있었으며(본 연구의 경우,  $\alpha=.87$ ), 실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부를 구분하는데 있어 오히려 기존의 32문항

척도(DAS-32)보다 더 높은 변별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DAS 문항은 기본적으로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부부뿐만 아니라 연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연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경우 DAS-10을 연인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예: “당신과 아내는 말다툼을 하십니까?” → “당신과 여자친구는 말다툼을 하십니까?”).

#### 대인관계반응 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IRI는 Davis(1980)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28 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인정받고 있다(Berstein & Davis, 1982; Davis, Hull, Young, & Warren, 1987).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며, 각 7문항씩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는 경향을 측정하는 관점취하기 척도(perspective-taking: PT), 소설이나 영화에 몰입하는 경향을 측정하는 상상 척도(fantasy: F), 부정적인 경험을 겪고 있는 타인에 대한 관심, 연민, 온정의 경향을 측정하는 공감적 관심 척도(empathic concern: EC), 타인의 부정적인 경험을 보았을 때의 불편감, 불안의 경향을 측정하는 개인적 고통 척도(personal distress: PD)가 포함된다. 4가지 하위요인 중 PT와 F는 인지적 공감과 관련이 있으며, EC과 PD는 정서적 공감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박성희(1994)가 한국판으로 번안 및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다음에 언급할 커플용 대인관계반응 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for Couple: IRI)에서 F 및 PD

하위요인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IRI 역시 전체 척도를 실시하지 않았고 PT와 EC에 해당하는 14 문항만을 선별하여 인지적 공감 및 정서적 공감을 측정하였다. 박성희(1994)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PT, EC 각각 .77, .6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71과 .67로 확인되었다.

#### 커플용 대인관계반응 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for Couple: IRI).

본 연구에서는 커플 상황 속 상대 파트너에 대한 이자간 공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커플용 공감척도 IRI(Péloquin & Lafontaine, 2010)를 번안하였다. 특히 기존 척도의 자기보고 방식(Self-reported version)에 더하여 파트너의 공감 수준을 관찰자 입장에서 평정하는 방식(Other-rating version)을 개별적으로 제작함으로써 두 가지 측면에서 이자간 공감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Péloquin와 Lafontaine(2010)의 IRI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IRI를 기반으로 문항에서 ‘people’이나 ‘somebody’와 같은 단어를 ‘my partner’나 ‘in my relationship with my partner’로 수정함으로써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감이 아닌 ‘상대 파트너’에 대한 이자간 공감으로 특정화/구체화시켰다. IRI의 4개 하위요인 중 F와 PD 요인은 배제하고 PT와 EC에 해당하는 문항만을 사용하였는데, PT와 EC는 타인 지향적 성격이 강한 반면 F와 PD는 자기 지향적 속성이 강하기에 공감의 객체가 배우자나 연인으로 특정화 되어 있는 척도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PD는 공감 핵심 요인을 측정하기보다 정서조절 측면(예: “나는 위급한 상황에서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편이다.”)과 관련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Baron-Cohen & Wheelwright, 2004; Cliffordson, 2001), 문항 중 다수가 응급 상황(예: “위급한 상황에 처해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보면 나는 어쩔 줄 모른다.”)을 가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IRICS 및 IRICO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 IRIC를 번안하여 IRICS의 문항을 구성하였고, IRICS 문항의 주체와 객체를 바꾸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IRICO를 제작하였다. 예를 들면, IRICS의 “나는 때때로 아내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기가 어렵다” 문항에서 ‘나와 아내의 위치를 서로 바꾸면, IRICO의 “아내는 때때로 나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기 어려워한다” 문항이 된다. IRICS는 자기보고 이자간 관점취하기(Self Dyadic Perspective Taking: SDPT)와 자기보고 이자간 공감적 관심(Self Dyadic Empathic Concern: SDEC) 하위 요인에 해당하는 7문항씩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IRICO도 지각된 파트너 이자간 관점취하기(Other Dyadic Perspective Taking: ODPT)와 지각된 파트너 이자간 공감적 관심(Other Dyadic Empathic Concern: ODEC) 하위 요인에 해당하는 7문항씩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IRICS와 IRICO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두 척도 모두 점수 범위는 14~7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파트너에 대한 공감수준이 더 높음을,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수준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절차로 작성된 IRICS 및 IRICO 예비 질문지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3인의 임상심리 전문가에게 평가 및 피드백을 받았다.

Péloquin & Lafontaine(2010)의 연구에서 IRIC의 내적합치도는 하위요인 DPT와 DEC 각각 .84와 .7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IRICS의 내

적합치도는 하위요인 SDPT와 SDEC 각각 .82와 .75로 확인되었다. IRICO의 내적합치도는 하위요인 ODPT와 ODEC 각각, .86과 .83으로 확인되었다.

#### 연구 절차 및 대상

온라인 및 설문지를 사용해 전국의 커플(부부 및 연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다. 총 702명이 설문에 응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미완성 되었거나 무성의한 자료, 커플 중 한쪽만이 설문에 응한 자료, 교제기간이 1년이 안 되는 자료(2)를 제외하고, 총 295쌍(590명)의 쌍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2.23세( $SD=14.13$ )로, 교제기간은 15.97년( $SD=13.11$ )이며, 부부 224쌍(75.9%), 연인 71쌍(24.1%)으로 나타났다.

#### 자료 분석 방법

이자간 공감척도(IRICS, IRICO)가 신뢰도 및 타당도를 가지고 있는지 다각도에서 살펴보았으며, 그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분석 프로그램으로 SPSS 18과 M-plus를 사용하였다.

첫째, IRICS 및 IRICO의 요인구조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하나의 집단을 대상으로 요인구조를 확인하였고, 확인된 요인구조가 또 다른 독립적 집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부합하는지 살펴보는 교차타당화 전략을 사용하였

2) 파트너 평정 방식을 적용한 선행연구(Long & Andrews, 1990)에서는 교제기간이 1년이 안 되는 연인의 경우 상대 파트너의 공감 수준에 대한 정확한 평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다. 전체 표본( $N=590$ )을 무선적으로 두 개의 하위 표본(Sample A:  $n=295$ , Sample B:  $n=295$ )<sup>3)</sup>으로 나누고 첫 번째 하위표본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두 번째 하위표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둘째, 남녀 집단 및 부부-연인 집단을 대상으로 다집단 요인분석(multi-group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성별 또는 결혼유무에 따라 IRICS 및 IRICO를 동일하게 적용가능한지 측정동일성을 확인하였다. 우선 남녀 집단을 대상으로 형태 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측정단위 동일성(metric invariance), 측정원점 동일성(scalar invariance), 측정오차분산 동일성(uniqueness invariance), 요인분산 동일성(factor variance invariance)을 단계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부부-연인 집단을 대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형태동일성 및 측정단위동일성, 측정원점동일성, 측정오차분산 동일성을 만족하는 경우, 측정 동일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Meredith, 1993).

셋째, IRICS 및 IRICO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합치도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넷째, IRICS 및 IRICO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 공시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2가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타당도가 널리 인정된 기존의 공감척도인 IRI와 IRICS, IRICO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공감과 이론적 관련성이 지지되고 있는 관계만족도(DAS)와 IRICS, IRICO 사이의 상관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관계만족도(DAS)를 예측하는데 있어 IRI 대비 IRICS, IRICO의 설명량을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살펴보으로써 증분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여섯째, 개인의 IRICS 점수에서 파트너의 IRICO 점수를 뺀 차이 값을 산출한 후 관계만족도(DAS)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의 IRICS와 파트너의 IRICO는 동일한 사람의 공감 수준을 반영하지만 측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자기보고 vs 파트너 평정). 두 척도는 개별적이고 고유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며, IRICS와 IRICO의 차이는 '파트너의 평가에 비해 스스로의 공감 수준을 얼마나 과대 보고 하는가'로 추정된다.

## 결 과

### 요인 구조 타당화

Sample A를 대상으로 IRICS의 1요인 구조와 2요인 구조를 가정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표 1과 같이 1요인 구조보다 2요인 구조가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Delta\chi^2=159.74$ ,  $\Delta df=13$ ,  $p<.001$ ,  $\Delta R^2=8.64\%$ . 2요인 구조 하에서 각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인 1은 얼마나 상대 파트너의 관점을 취하려고 하는지를 의미하는 '자기보고 이자간 관점취하기(Self Dyadic Perspective Taking: SDPT)'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요인 2는 얼마나 파트너에게 관심, 연민, 온정의 경향을 보이는지를 반영하는 '자기보고 이자간 공감적 관심(Self Dyadic Empathic Concern: SDEC)' 요인에 해당한다. 두 요인 간 상관은  $r=.47$ 으로 나타났다.

IRICO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표 2와 같

3) 두 하위표본은 인구통계학적 특징(성별, 연령, 결혼유무, 결혼 및 교제기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 IRICS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1요인		2요인	
		1	1	1	2
Q2	나는 때때로 아내(남편)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기가 어렵다.	.447	.380		.131
Q4	나는 아내(남편)와 의견이 다르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아내(남편)의 생각을 살펴보고 노력한다.	.654	.497		.241
Q6	나는 때때로 아내(남편)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상상하면서 아내(남편)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710	.567		.222
Q8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 내가 옳다고 확신하면 아내(남편)의 말을 듣기 위해 많은 시간을 쏟지 않는다.	.513	.296		.293
Q11	나는 부부 사이의 문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보려고 노력한다.	.649	.555		.169
Q13	대체로 나는 아내(남편)에게 화가 날 때 잠시나마 아내(남편)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한다.	.685	.807		-.004
Q14	나는 아내(남편)를 비난하기 전에 내가 아내(남편)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지 상상해보려고 노력한다.	.708	.846		-.010
Q1	나는 아내(남편)가 힘들어할 때면 자주 마음이 쓰인다.	.618	.123		.628
Q3	나는 아내(남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아내(남편)에 대해 마음 아파하지 않을 때가 더러 있다.	.554	.005		.695
Q5	나는 아내(남편)가 이용당하는 것을 보면 아내(남편)를 보호해야 한다고 느낀다.	.594	.117		.610
Q7	아내(남편)의 불운한 일 때문에 내가 심한 동요를 경험하는 일은 대체로 없다.	.367	-.036		.483
Q9	아내(남편)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봐도 나는 때때로 동정심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	.487	-.190		.842
Q10	나는 우리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 감동하는 일이 자주 있다.	.558	.242		.411
Q12	아내(남편)와의 관계에 있어, 나는 나 자신을 여린 마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한다.	.108	-.050		.183
		$\chi^2(df)$		330.05	144.20
				(77)	(64)
		설명변량(%)		32.32	40.96

표 2. IRICO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1요인		2요인	
	1	1	2	
Q2 아내(남편)는 때때로 나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기 어려워워한다.	.476	.232	.293	
Q4 아내(남편)는 나와 의견이 다르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나의 생각을 살펴보려고 노력한다.	.743	.399	.428	
Q6 아내(남편)는 때때로 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면서 나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775	.417	.442	
Q8 아내(남편)는 어떤 문제에 대해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면, 나의 말을 듣기 위해 많은 시간을 쏟지 않는다	.522	.372	.216	
Q11 아내(남편)는 부부 사이의 문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보려고 노력한다.	.697	.572	.224	
Q13 아내(남편)는 나에게 화가 날 때, 대체로 잠시나마 나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한다.	.706	.861	.002	
Q14 아내(남편)는 나를 비난하기 전에 본인이 나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지 상상해보려고 노력한다.	.709	.880	-.008	
Q1 내가 힘들어할 때면, 아내(남편)는 나에게 자주 마음을 써준다.	.651	-.068	.796	
Q3 아내(남편)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 아파하지 않을 때가 더러 있다.	.570	-.082	.711	
Q5 내가 이용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내(남편)는 나를 보호해 주려고 한다.	.656	.008	.729	
Q7 나의 불운한 일 때문에 아내(남편)가 심한 동요를 경험하는 일은 대체로 없다.	.354	-.060	.449	
Q9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봐도 때때로 아내(남편)는 크게 동정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623	.013	.686	
Q10 아내(남편)는 우리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 감동하는 일이 자주 있다.	.638	.065	.648	
Q12 아내(남편)는 나와 관계에 있어 매우 마음이 여린 사람이다.	.553	.226	.402	
	374.37	166.08		
	(77)	(64)		
설명변량(%)	39.58	47.36		

표 3. IRICS & IRICO 측정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지수

		$\chi^2$	df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IRICS	대안모형 (1요인)	225.25***	76	.848	.818	.082 [.069, .094]
	연구모형 (2요인)	170.48***	75	.903	.882	.066 [.053, .079]
IRICO	대안모형 (1요인)	209.22***	76	.911	.894	.077 [.065, .090]
	연구모형 (2요인)	174.56***	75	.934	.920	.067 [.054, .080]

IRICS: 자기보고 이자간 공감, IRICO: 파트너 평정 이자간 공감

\*\*\*  $p < .001$ .

이 2요인 구조가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Delta\chi^2=183.56$ ,  $\Delta df=13$ ,  $p<.001$ ,  $\Delta R^2=7.78\%$ . 2요인 구조 하에서 각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인 1은 상대 파트너의 관점취하기를 평정한 ‘지각된 파트너 이자간 관점취하기(Other Dyadic Perspective Taking: ODPT)’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요인 2는 상대 파트너가 보이는 관심, 연민, 온정의 수준을 평정한 ‘지각된 파트너 이자간 공감적 관심(Other Dyadic Empathic Concern: ODEC)’ 요인을 의미한다. 두 요인 간 상관은  $r=.55$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Sample B를 대상으로 IRICS의 연구모형(14문항 2요인 모형)과 대안모형(14문항 1요인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sup>4)</sup>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1과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모형이 전반적으로 경험적 자료에 적절히 부합하였으며,  $\chi^2=170.48$ ,  $df=75$ ,  $p<.001$ ,  $CFI=.903$ ,  $TLI=.882$ ,  $RMSEA=.066$  [.053, .079], 대안모형,  $\chi^2=225.25$ ,  $df=76$ ,  $p<.001$ ,  $CFI=.848$ ,  $TLI=.818$ ,  $RMSEA=.082$  [.069, .094]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더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그림 1과 같이 모든 문항의 경로계수(표준화 요인계수)가 .29이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두 하위요인 간 상관은 .76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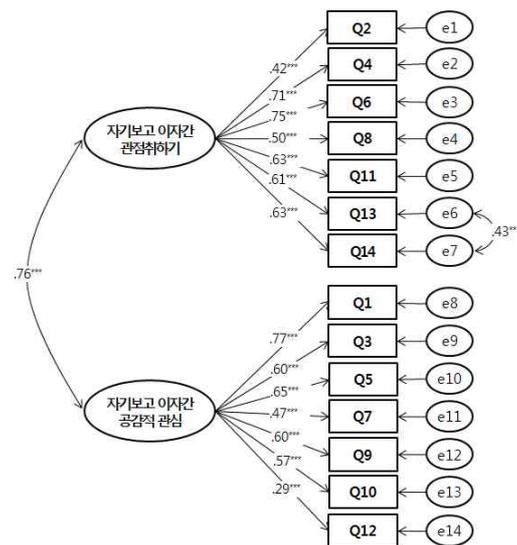


그림 1. IRICS의 연구모형(2요인 모형)

4) 서로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는 문항(13과 14) 간에 오차공분산을 허용하는 과정을 통해 모형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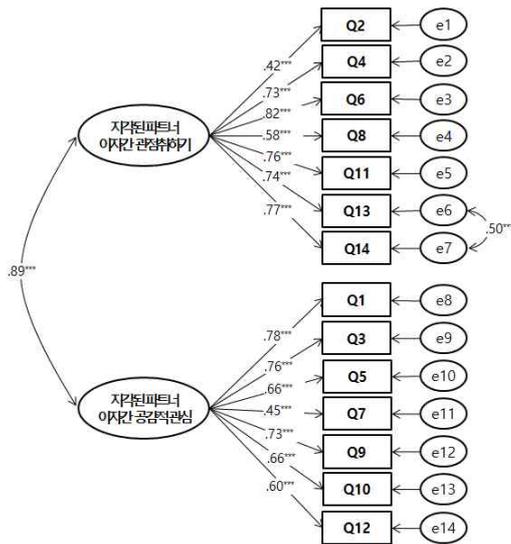


그림 2. IRICO의 연구모형(2요인 모형)

나타났다. 한편, 문항 12의 경우,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뿐만 아니라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여타 문항에 비해 SDEC 요인과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éloquin와 Lafontaine(2010)도 IRIC 제작 과정에서 해당 문항을 배제함으로써, 신뢰도와 요인구조 적합성을 높인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IRICS와 IRICO를 동시에 제작하기에 두 척도의 대칭성 및 상호비교 용이성을 위해 해당 문항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IRICO 역시 표 3과 같이, 연구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적절히 부합하였으며,  $\chi^2=174.56$ ,  $df=75$ ,  $p<.001$ , CFI=.934, TLI=.920, RMSEA=.067[.054, .080], 대안모형,  $\chi^2=209.22$ ,  $df=76$ ,  $p<.001$ , CFI=.911, TLI=.894, RMSEA=.077[.065, .090], 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더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문항의 경로계수들은 .42이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두 하위요인 간 상관은 .89로 나타났다.

### 측정 동일성 검증: 남녀 집단 간

남녀 집단 간 IRICS의 측정동일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째, 형태동일성을 확인한 결과, 남성,  $\chi^2=150.72$ ,  $df=75$ ,  $p<.001$ , CFI=.934, TLI=.920, RMSEA=.059[.045, .072], 과 여성,  $\chi^2=167.25$ ,  $df=75$ ,  $p<.001$ , CFI=.895, TLI=.873, RMSEA=.065[.052, .078], 모두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둘째, 잠재 변수들의 요인계수의 값이 남녀 간에 동일하다는 제약을 추가하고 모형의 적합도 지수 변화를 살펴보는 측정단위 동일성을 평가한 결과(모형1 vs 모형2), 모형 간  $\chi^2$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지만,  $\Delta\chi^2=21.45$ ,  $\Delta df=12$ ,  $p<.05$ , CFI 값의 변화의 크기가 Cheung와 Rensvold (2002)이 제안한 기준( $\Delta CFI>.02$ )을 넘어서지 않는 수준이었으며,  $\Delta CFI=-.004$ , TLI와 RMSEA 값도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측정 변수들의 절편이 남녀 간 동일하다는 제약을 추가하고 측정원점 동일성을 평가한 결과(모형 2 vs 3), 모형 간  $\chi^2$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지만,  $\Delta\chi^2=36.30$ ,  $\Delta df=12$ ,  $p<.001$ , CFI, TLI 및 RMSEA 값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측정 변수들의 오차 분산이 남녀 간 동일하다는 제약을 추가하고 측정오차분산 동일성을 평가한 결과(모형 3 vs 4), 모형 간  $\chi^2$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Delta\chi^2=23.67$ ,  $\Delta df=14$ ,  $m$ , CFI 값의 변화도 적고, TLI와 RMSEA 값은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잠재 요인의 분산이 남녀 간 동일하다는 제약을 추가하고 요인분산 동일성을 평가한 결과(모형 4 vs 5), 모형 간  $\chi^2$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Delta\chi^2=2.81$ ,  $\Delta df=2$ ,  $m$ , CFI 및 TLI, RMSEA 값 역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남녀 집단

표 4. IRICS 척도의 남녀 집단 간 측정동일성 평가

모형	$\chi^2$	df	CFI	TLI	RMSEA [90%CI]	$\Delta\chi^2$	$\Delta df$	$\Delta CFI$
모형 1: 형태 동일성	남	150.72***	75	.934	.920	.059[.045, .072]	-	-
	여	167.25***	75	.895	.873	.065[.052, .078]	-	-
	전체	318.04***	150	.917	.900	.062[.052, .071]	-	-
모형 1 vs 2	-	-	-	-	-	21.48*	12	-.004
모형 2: 측정단위동일성	339.58***	162	.913	.902	.061[.052, .070]	-	-	-
모형 2 vs 3	-	-	-	-	-	36.30***	12	-.012
모형 3: 측정단위 및 측정원점 동일성	374.31***	174	.901	.897	.063[.054, .071]	-	-	-
모형 3 vs 4	-	-	-	-	-	23.67	14	-.004
모형 4: 측정단위, 측정원점 및 오차분산 동일성	396.36***	188	.897	.901	.061[.053, .070]	-	-	-
모형 4 vs 5	-	-	-	-	-	2.81	2	.000
모형 5: 측정단위, 측정원점, 오차분산, 요인분산 동일성	399.39***	190	.897	.901	.061[.053, .070]	-	-	-

\*  $p < .05$ , \*\*  $p < .01$ , \*\*\*  $p < .001$ .

간 IRICS 척도의 측정형태·단위·원점·오차분산 및 요인분산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IRICS 척도를 남녀 집단에서 하나의 척도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홍세희, 황매향, 이은설, 2005).

다음으로, IRICO의 측정동일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첫째, 남녀 집단의 형태 동일성을 평가한 결과, 남성,  $\chi^2=166.94$ ,  $df=75$ ,  $p < .001$ , CFI=.934, TLI=.920, RMSEA=.065[.051, .078], 과 여성,  $\chi^2=189.41$ ,  $df=75$ ,  $p < .001$ , CFI=.923, TLI=.906, RMSEA=.072[.059, .085], 에게 동일한 요인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측정단위 동일성을 평가한 결과(모형1 vs 모형2), 모형 간  $\chi^2$  값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Delta\chi^2=12.67$ ,  $\Delta df=12$ ,  $ns$ , CFI 값 역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TLI 및 RMSEA 값은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 측정원점 동일성을 검증한 결과(모형2 vs 모형3), 모형 간  $\chi^2$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지만,  $\Delta\chi^2=33.00$ ,  $\Delta df=12$ ,  $p < .01$ , CFI 값의 변화의 크기가 Cheung와 Rensvold(2002)이 제안한 기준( $\Delta CFI > .02$ )을 넘어서지 않는 수준이었으며,  $\Delta CFI = -.007$ , TLI 및 RMSEA 값 역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측정오차분산 동일성을 평가한 결과(모형3 vs 모형4), 모형 간  $\chi^2$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지만,  $\Delta\chi^2=47.94$ ,  $\Delta df=14$ ,  $p < .001$ , CFI, TLI와 RMSEA 값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다섯째, 요인분산 동일성 검증 결과, 모형 간  $\chi^2$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지만,  $\Delta\chi^2=9.25$ ,  $\Delta df=2$ ,  $p < .01$ , CFI, TLI와 RMSEA 값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IRICS와 마찬가지로 IRICO 역시 남녀 집단 간 측정 형태·단위·원점·오차분산 및 요인분산 동일성을 확

표 5. IRICO 척도의 남녀 집단 간 측정동일성 평가

모형		$\chi^2$	df	CFI	TLI	RMSEA [90%CI]	$\Delta\chi^2$	$\Delta df$	$\Delta CFI$
모형 1: 형태 동일성	남	166.94***	75	.934	.920	.065[.051, .078]	-	-	-
	여	189.41***	75	.923	.906	.072[.059, .085]	-	-	-
	전체	356.60***	150	.928	.913	.068[.059, .078]	-	-	-
모형 1 vs 2		-	-	-	-	-	12.67	12	-.000
모형 2: 측정단위동일성		369.77***	162	.928	.919	.066[.057, .075]	-	-	-
	모형 2 vs 3		-	-	-	-	-	33.00**	12
모형 3: 측정단위 및 측정원점 동일성		401.87***	174	.921	.917	.067[.058, .075]	-	-	-
	모형 3 vs 4		-	-	-	-	-	47.94***	14
모형 4: 측정단위, 측정원점 및 오차분산 동일성		451.76***	188	.908	.911	.069[.061, .077]	-	-	-
	모형 4 vs 5		-	-	-	-	-	9.25**	2
모형 5: 측정단위, 측정원점, 오차분산, 요인분산 동일성		459.60***	190	.906	.910	.069[.061, .078]	-	-	-

\*  $p < .05$ , \*\*  $p < .01$ , \*\*\*  $p < .001$ .

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IRICO를 남녀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척도임을 시사한다.

측정 동일성 검증: 부부-연인 집단 간

부부-연인 집단 간 IRICS의 측정동일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첫째, 형태동일성을 확인한 결과, 부부 집단,  $\chi^2=231.74$ ,  $df=75$ ,  $p < .001$ , CFI=.896, TLI=.874, RMSEA=.068[.059, .079], 과 연인 집단,  $\chi^2=113.74$ ,  $df=75$ ,  $p < .001$ , CFI=.890, TLI=.867, RMSEA=.060[.036, .082], 모두 비교적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둘째, 잠재 변수들의 요인계수의 값이 부부-연인 집단 간에 동일하다는 제약을 추가하고 모형의 적합도 지수 변화를 살펴보는 측정단위 동일성을 평가한 결과(모형1 vs 모형2),

모형 간  $\chi^2$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지만,  $\Delta\chi^2=28.50$ ,  $\Delta df=12$ ,  $p < .01$ , CFI, TLI와 RMSEA 값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셋째, 측정 변수들의 절편이 부부-연인 집단 간 동일하다는 제약을 추가하고 측정원점 동일성을 평가한 결과(모형 2 vs 3), 모형 간  $\chi^2$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Delta\chi^2=36.30$ ,  $\Delta df=12$ ,  $ns$ , CFI 값의 감소도 경미했으며, TLI 및 RMSEA 값은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측정 변수들의 오차 분산이 부부-연인 집단 간 동일하다는 제약을 추가하고 측정오차분산 동일성을 평가한 결과(모형 3 vs 4), 모형 간  $\chi^2$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Delta\chi^2=44.69$ ,  $\Delta df=14$ ,  $p < .001$ , CFI 값의 변화의 크기가 Cheung와 Rensvold(2002)이 제안한 기준 ( $\Delta CFI > .02$ )을 넘어서지는 않는 수준이었으며,  $\Delta CFI = -.020$ , TLI와 RMSEA 값의 변화도 크지

표 6. IRICS 척도의 부부-연인 집단 간 측정동일성 평가

모형		$\chi^2$	df	CFI	TLI	RMSEA [90%CI]	$\Delta\chi^2$	$\Delta df$	$\Delta CFI$
모형 1: 형태 동일성	부부	231.74***	75	.896	.874	.068[.059, .079]	-	-	-
	연인	113.74***	75	.890	.867	.060[.036, .082]	-	-	-
	전체	352.65***	150	.894	.871	.068[.059, .077]	-	-	-
모형 1 vs 2		-	-	-	-	-	28.50**	12	-.009
모형 2: 측정단위동일성		381.16***	162	.885	.871	.068[.059, .077]	-	-	-
	모형 2 vs 3		-	-	-	-	-	14.76	12
모형 3: 측정단위 및 측정원점 동일성		397.20***	174	.883	.877	.066[.057, .075]	-	-	-
	모형 3 vs 4		-	-	-	-	-	44.69***	14
모형 4: 측정단위, 측정원점 및 오차분산 동일성		449.06***	188	.863	.867	.069[.061, .077]	-	-	-
	모형 4 vs 5		-	-	-	-	-	24.15***	2
모형 5: 측정단위, 측정원점, 오차분산, 요인분산 동일성		479.31***	190	.848	.854	.072[.064, .080]	-	-	-

\*  $p < .05$ , \*\*  $p < .01$ , \*\*\*  $p < .001$ .

않았다. 다섯째, 잠재 요인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제약을 추가하고 요인분산 동일성을 평가한 결과(모형 4 vs 5), 모형 간  $\chi^2$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Delta\chi^2=24.15$ ,  $\Delta df=2$ ,  $p < .001$ , CFI 및 TLI, RMSEA 값 역시 변화가 크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부부-연인 집단 간 IRICS 척도의 측정형태·단위·원점·오차분산 및 요인분산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IRICS 척도를 결혼유무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IRICO의 측정동일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첫째, 부부 및 연인 집단의 형태 동일성을 평가한 결과, 부부 집단,  $\chi^2=247.92$ ,  $df=75$ ,  $p < .001$ , CFI=.919, TLI=.902, RMSEA=.072[.062, .082], 과 연인 집단,  $\chi^2=91.51$ ,  $df=75$ ,  $ns$ , CFI=.973, TLI=.967, RMSEA=.029[.000, .065], 에게 동일한 요인구조를 적용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측정단위 동일성을 평가한 결과(모형1 vs 모형2), 모형 간  $\chi^2$  값의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Delta\chi^2=43.05$ ,  $\Delta df=12$ ,  $p < .001$ , CFI 값의 변화는 허용가능한 수준이었고,  $\Delta CFI=-.012$ , TLI 및 RMSEA 값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측정원점 동일성을 검증한 결과(모형2 vs 모형3), 모형 간  $\chi^2$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지만,  $\Delta\chi^2=21.46$ ,  $\Delta df=12$ ,  $p < .05$ , CFI 값의 변화가 경미했고 TLI 및 RMSEA 값은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측정오차분산 동일성을 평가한 결과(모형3 vs 모형4), 모형 간  $\chi^2$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지만,  $\Delta\chi^2=30.20$ ,  $\Delta df=14$ ,  $p < .01$ , CFI 값의 변화가 경미했고,  $\Delta CFI=-.005$ , TLI 및 RMSEA 값은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요인분산 동일성 검증 결과, 모형 간  $\chi^2$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표 7. IRICO 척도의 부부-연인 집단 간 측정동일성 평가

모형		$\chi^2$	df	CFI	TLI	RMSEA [90%CI]	$\Delta\chi^2$	$\Delta df$	$\Delta CFI$
모형 1: 형태 동일성	부부	247.92***	75	.919	.902	.072[.062, .082]	-	-	-
	연인	91.51	75	.973	.967	.039[.000, .065]	-	-	-
	전체	349.62***	150	.929	.914	.067[.058, .076]	-	-	-
모형 1 vs 2		-	-	-	-	-	43.05***	12	-.012
모형 2: 측정단위동일성		394.24***	162	.917	.907	.070[.061, .079]	-	-	-
	모형 2 vs 3		-	-	-	-	-	21.46*	12
모형 3: 측정단위 및 측정원점 동일성		416.68***	174	.913	.909	.069[.060, .077]	-	-	-
	모형 3 vs 4		-	-	-	-	-	30.20**	14
모형 4: 측정단위, 측정원점 및 오차분산 동일성		445.92***	188	.908	.911	.068[.060, .077]	-	-	-
	모형 4 vs 5		-	-	-	-	-	3.45	2
모형 5: 측정단위, 측정원점, 오차분산, 요인분산 동일성		449.47***	190	.907	.911	.068[.060, .076]	-	-	-

\*  $p < .05$ , \*\*  $p < .01$ , \*\*\*  $p < .001$ .

지 않았고,  $\Delta\chi^2=3.45$ ,  $\Delta df=2$ ,  $ns$ , CFI, TLI와 RMSEA 값도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IRICO의 부부-연인 집단 간 측정 형태·단위·원점·오차분산 및 요인분산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IRICS와 마찬가지로 IRICO를 부부와 연인 집단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신뢰도

IRICS와 IRICO의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IRICS의 전체문항은 .86(남: .88, 여: .84, 부부: .86, 연인: .80)의 신뢰도 계수를 보였으며, 자기보고 이자간 관점취하기 요인(SDPT)과 자기보고 이자간 공감적 관심 요인(SDEC)은 각각 .82(남: .84, 여: .78, 부부: .82, 연인: .79)와 .75(남: .74, 여: .76, 부부: .73, 연

인: .6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IRICO의 전체 문항은 .90(남: .89, 여: .91, 부부: .90, 연인:

표 8. IRICS 및 IRICO의 신뢰도

	문항수	Cronbach's $\alpha$				
		남	여	부부	연인	전체
IRICS						
SDPT	7	.78	.84	.82	.79	.82
SDEC	7	.76	.74	.73	.63	.75
IRICS 전체	14	.84	.88	.86	.80	.86
IRICO						
ODPT	7	.86	.87	.86	.86	.86
ODEC	7	.83	.83	.81	.82	.83
IRICO 전체	14	.89	.91	.90	.88	.90

Note. IRICS: 자기보고 이자간 공감, SDPT: 자기보고 이자간 관점취하기, SDEC: 자기보고 이자간 공감적 관심, IRICO: 파트너 평정 이자간 공감, ODPT: 지각된 파트너 이자간 관점취하기, ODEC: 지각된 파트너 이자간 공감적 관심.

.88)의 신뢰도 계수를 보였으며, 지각된 파트너 이자간 관점취하기 요인(ODPT)과 지각된 파트너 이자간 공감적 관심 요인(ODEC)은 각각 .86(남: .86, 여: .87, 부부: .86, 연인: .86)과 .83(남: .83, 여: .83, 부부: .81, 연인: .82)로 나타났다. SDEC의 신뢰도 계수가 집단에 따라 다소 불안정한 면을 제외하면 선행 연구(.66~.73) 및 본 연구(PT: .71, EC: .67, IRI 전체: .77)에서 나타난 IRI의 신뢰도보다 전반적으로 IRICS 및 IRICO가 더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수렴 및 변별타당도, 공시타당도

타당도가 널리 인정된 기존의 공감척도인 IRI와 IRICS, IRICO의 상관을 살펴봄으로써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IRI와 이자간 공감척도(IRICS, IRICO) 사이의 상관을 살펴보면, 전체 문항 점수 및 하위요인 점수에 걸쳐 IRICS,  $r=.34 \sim .51$ ,  $p<.001$ ,와 IRICO,  $r=.17 \sim .21$ ,  $p<.001$ , 모두 IRI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IRI와 IRICS의 상관계수들이 IRI와 IRICO의 상관계수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표 9. IRI 및 IRICS, IRICO의 상관 분석

	IRI			IRICS			IRICO		
	PT	EC	IRI 전체	SDPT	SDEC	IRICS 전체	ODPT	ODPT	IRICO 전체
IRI									
PT	-								
EC	.44***	-							
IRI 전체	.85***	.84***	-						
IRICS									
SDPT	.51***	.25***	.45***	-					
SDEC	.28***	.34***	.37***	.56***	-				
IRICS 전체	.45***	.33***	.46***	.89***	.88***	-			
IRICO									
ODPT	.17***	.13***	.18***	.44***	.40***	.47***	-		
ODEC	.21***	.21***	.25***	.50***	.59***	.61***	.70***	-	
IRICO 전체	.21***	.18***	.23***	.51***	.53***	.59***	.93***	.92***	-

Note. IRI: 일반적 공감, PT: 일반적 관점취하기, EC: 일반적 공감적 관심, IRICS: 자기보고 이자간 공감, SDPT: 자기보고 이자간 관점취하기, SDEC, 자기보고 이자간 공감적 관심, IRICO: 파트너 평정 이자간 공감, ODPT: 지각된 파트너 이자간 관점취하기, ODEC: 지각된 파트너 이자간 공감적 관심

\*\*\*  $p<.001$ .

요인 간의 상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RICS의 SDPT 요인은 IRI의 EC,  $r=.25, p<.001$ , 보다는 PT,  $r=.51, p<.001$ ,와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표 10. 이자간 공감척도(IRICS, IRICO)와 관계만족도(DAS) 사이의 상관 분석

	본인 DAS	파트너 DAS
<b>남성</b>		
IRICS		
SDPT	.53***	.45***
SDEC	.65***	.49***
IRICS 전체	.65***	.52***
IRICO		
ODPT	.45***	.32***
ODEC	.64***	.52***
IRICO 전체	.60***	.46***
<b>여성</b>		
IRICS		
SDPT	.46***	.32***
SDEC	.57***	.50***
IRICS 전체	.60***	.48***
IRICO		
ODPT	.57***	.39***
ODEC	.69***	.56***
IRICO 전체	.67***	.51***

Note. IRICS: 자기보고 이자간 공감, SDPT: 자기보고 이자간 관점취하기, SDEC: 자기보고 이자간 공감적 관심; IRICO: 파트너 평정 이자간 공감, ODPT: 지각된 파트너 이자간 관점취하기, SDEC: 지각된 파트너 이자간 공감적 관심; DAS: 관계만족도

\*\*\*  $p<.001$ .

으며, SDEC 요인은 PT,  $r=.28, p<.001$ , 보다는 EC,  $r=.34, p<.001$ ,와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반면, IRI의 하위 요인과 IRICO에서 대응하는 하위 요인과 간 상관은 크게 변별되지 않는 양상을 나타냈다, ODPT-PT:  $r=.17$  vs ODPT-EC:  $r=.13$ , SDEC-PT:  $r=.21$  vs SDEC-EC:  $r=.21$ .

다음으로, 이론적으로 관련성이 지지되고 있는 관계만족도(DAS)와 IRICS, IRICO의 상관을 확인함으로써 공시타당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IRICS의 전체점수 및 하위요인 점수는 남녀 모두 본인의 관계만족도,  $r=.46\sim.65, p<.001$ , 및 파트너의 관계만족도,  $r=.32\sim.52, p<.001$ ,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IRICO 역시 본인의 관계만족도,  $r=.45\sim.69, p<.001$ , 및 파트너의 관계만족도,  $r=.32\sim.56, p<.001$ ,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한편, 해당 상관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녀 간 차이가 발견되는데, 남성 본인의 DAS 점수는 IRICS와의 상관,  $r=.52\sim.65, p<.001$ ,이 IRICO와의 상관,  $r=.45\sim.64, p<.001$ ,보다 전반적으로 높거나 유사한 반면, 여성 본인의 DAS 점수는 IRICO와의 상관,  $r=.57\sim.69, p<.001$ ,이 IRICS와의 상관,  $r=.46\sim.60, p<.001$ ,보다 전반적으로 높았다.

#### 증분타당도

일반적 공감척도(IRI) 대비 이자간 공감척도(IRICS, IRICO)의 증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및 파트너의 관계만족도를 준거변인으로, IRI 및 IRICS, IRICO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여 일련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본인 및 파트너의 관계만족도를 예측하는데 있어 IRICS 및 IRICO의 추가적 설명량은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Delta R^2=.21$

표 11. IRI 대비 IRICS, IRICO의 증분타당도

		$\beta$	$t$	$R^2$	$\Delta R^2$	$\Delta F$
<b>남성</b>						
<b>공감 → 본인 관계만족도</b>		<b>(행위자 효과)</b>				
1단계: IRI	→ DAS	.27	4.71***	.07		
2단계: IRI	→ DAS	-.08	1.61	.43	.35	178.07***
	IRICS	.69	13.34***			
3단계: IRI		-.09	3.14			
	IRICS → DAS	.49	8.41***	.49	.06	36.64***
	IRICO	.32	6.05***			
<b>공감 → 파트너 관계만족도</b>		<b>(파트너 효과)</b>				
1단계: IRI	→ DAS	.24	4.23***	.06		
2단계: IRI	→ DAS	-.03	0.53	.27	.21	85.10***
	IRICS	.54	9.23***			
3단계: IRI		-.03	0.60			
	IRICS → DAS	.40	5.82***	.30	.03	13.24***
	IRICO	.23	3.64***			
<b>여성</b>						
<b>공감 → 본인 관계만족도</b>		<b>(행위자 효과)</b>				
1단계: IRI	→ DAS	.20	3.46***	.04		
2단계: IRI	→ DAS	-.08	1.75	.46	.42	222.97***
	IRICO	.66	14.93***			
3단계: IRI		-.04	0.84			
	IRICO → DAS	.49	9.89***	.52	.06	39.52***
	IRICS	.34	6.29***			
<b>공감 → 파트너 관계만족도</b>		<b>(파트너 효과)</b>				
1단계: IRI	→ DAS	.18	3.04***	.03		
2단계: IRI	→ DAS	.09	1.65	.26	.23	90.91***
	IRICO	.49	9.54***			
3단계: IRI		-.01	0.23			
	IRICO → DAS	.35	5.83***	.31	.05	19.52***
	IRICS	.27	4.42***			

Note. IRI: 일반적 공감, IRICS: 자기보고 이자간 공감, IRICO: 파트너 평정 이자간 공감, DAS: 관계만족도; 1단계: IRI 투입, 2-3단계: IRICS, IRICO를 stepwise 방식으로 투입

\*\*\*  $p < .001$ .

~.42,  $\Delta R^2=.03\sim.06$ 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RI의 설명량,  $R^2=.03\sim.07$ ,과 비교해서도 큰 수치로 커플의 관계만족도를 예측하는데 있어 IRI와 구분되는 이자간 공감척도만의 유의한 영향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남녀 간 차이가 존재한다. 본인 및 파트너의 관계만족도(DAS)를 예측하는데 있어, 남성은 IRICS가 IRICO에 앞서 우선적으로 투입되었으며, 3단계에서 확인된 표준화 회귀계수도 IRICS,  $\beta=.40\sim.49$ ,  $p_1<.001$ ,가 IRICO,  $\beta=.23\sim.32$ ,  $p_2<.001$ ,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IRICO가 먼저 투입되었으며, 3단계에서 확인된 표준화 회귀계수도 IRICO,  $\beta=.35\sim.49$ ,  $p_1<.001$ ,가 IRICS,  $\beta=.27\sim.34$ ,  $p_2<.001$ ,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관계만족도와 IRICS, IRICO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와도 유사한 양상으로, 남성은 '자신이 얼마나 상대 여성 파트너를 많이 공감하는지'가 본인 및 파트너의 관계만족도를 더 많이 예측하는 반면 여성은 '지각된 남성 파트너의 공감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가 자신 및 파트너의 관계만족도를 더 많이 설명하였다.

#### IRICS와 IRICO의 점수 차이와 관계만족도의 상관분석

개인의 IRICS와 파트너의 IRICO는 동일한 사람의 공감 수준을 반영하지만 하나는 자기보고식, 다른 하나는 파트너 평정이라는 측정 방식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두 척도는 개별적이고 고유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며, IRICS와 IRICO의 차이를 산출하고 관계만족도(DAS)와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확인

표 12. IRICS, IRICO의 점수 차이와 관계만족도(DAS)의 상관 분석

	본인 DAS	파트너 DAS
<b>남성</b>		
<b>본인IRICS - 파트너IRICO</b>		
SDPT - ODPT	.05	-.21***
SDEC - ODEC	-.04	-.33***
IRICS전체 - IRICO전체	.01	-.31***
<b>여성</b>		
<b>본인IRICS - 파트너IRICO</b>		
SDPT - ODPT	.06	-.19**
SDEC - ODEC	.00	-.20***
IRICS전체 - IRICO전체	.04	-.22***

Note. IRICS: 자기보고 이자간 공감, SDPT: 자기보고 이자간 관점취하기, SDEC: 자기보고 이자간 공감적 관심; IRICO: 파트너 평정 이자간 공감, ODPT: 지각된 파트너 이자간 관점취하기, SDEC: 지각된 파트너 이자간 공감적 관심, DAS: 관계만족도  
\*\*  $p<.01$ , \*\*\*  $p<.001$ .

해 보고자 하였다. 개인의 IRICS 점수와 파트너의 IRICO 점수 간 차이는 '파트너의 평가에 비해 본인의 공감 수준을 얼마나 더 과대 보고 하는가'를 의미하게 된다.

개인의 IRICS와 파트너의 IRICO의 점수 간 차이를 산출하고 관계만족도(DAS)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남성의 IRICS와 상대 여성이 평정한 IRICO의 차이는 남성 본인의 관계만족도와 별다른 관련이 없었으나,  $r=-.04\sim.05$ ,  $ns$ , 여성 파트너의 관계만족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r=-.21\sim-.33$ ,  $p_1<.001$ . 이와 유사하게 여성의 IRICS와 상대 남성이 평정한 IRICO의 차이는 여성 본인의 관계만족도와 별다른 관련이 없었으나,  $r=.00\sim.06$ ,  $ns$ , 남성 파트너의 관계만족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r = -.19 \sim -.22$ ,  $p < .01$ . 파트너의 평가에 비해 본인의 공감 수준을 더 높게 과대평가할수록 상대 파트너의 관계만족도는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반면 본인의 관계만족도는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커플 관계의 공감을 측정하기 위한 이자간 공감 척도를 제안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외의 기존 척도(IRIC)를 국내 번안하는 과정에서 자기보고 방식(IRICS)과 파트너평정 방식(IRICO)을 함께 제안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IRICS와 IRICO 모두 안정적인 2요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각각 자기보고 이자간 관점취하기(Self Dyadic Perspective Taking)와 자기보고 이자간 공감적 관심(Self Dyadic Empathic Concern), 지각된 파트너 이자간 관점취하기(Other Dyadic Perspective Taking)와 지각된 파트너 이자간 공감적 관심(Other Dyadic Empathic Concern)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요인구조는 심리측정적 관점에서 성별, 결혼유무와 상관없이 남녀 집단 및 부부-연인 집단에게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 결과, IRICS와 IRICO 모두 기존의 공감 척도인 IRI를 상회하는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IRICO는 여러 집단(남, 여, 부부, 연인)에서 두 하위요인 ODPT, ODEC 모두 .80 이상의 안정적인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IRICS도 여러 집단(남, 여, 부부, 연인)에서 .80 이상의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으나, 하위

요인인 중 SDEC는 집단에 따른 다소의 불안정성이 존재했다. 이는 선행 연구(Péloquin & Lafontaine, 2010)와 달리 본 연구에서 IRICS와 IRICS의 대칭성 및 상호비교 용이성을 위해 문항 12<sup>5)</sup>를 배제하지 않고 SDEC 요인의 측정 변수로 포함시킨 점의 영향이 일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할 수 있겠다.

타당도를 인정받는 여타 다른 척도와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IRICS 및 IRICO의 구성타당도가 지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타당도가 인정된 기존의 공감 척도인 IRI와 이자간 공감 척도(IRICS, IRICO)의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가 확인되었다. 기본적으로 IRI와 IRICS, IRICO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으며, IRI와 IRICS의 상관성이 IRI와 IRICO의 상관보다 전반적으로 높고 하위 요인 수준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이론적 배경과도 일치하는 양상으로, IRI와 IRICS는 공감의 대상은 구분되지만 공감의 주체는 '본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IRICO는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 수준을 보고하기에 공감의 주체가 '상대 파트너'라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공감과 이론적 관련성이 지지되는 관계만족도(DAS)와 이자간 공감 척도(IRICS, IRICO)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IRICS 및 IRICO의 공시타당도가 지지되었다. IRICO, IRICO 전체 점수를 비롯해 하위 요인 모두 본인 및 파트너의 관계만족도와 정적 관련성이 존재하였다. 즉, 커플 관계 속에서 상대 파트너를 더 공감한다고 보고할수록(파트너의 관점을 취하려 하고, 관심이거나 연민, 온정을 더 표현한다고 할수록) 커플 관

5) 문항 12. "아내(남편)와의 관계에 있어, 나는 나 자신을 여린 마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한다."

계를 더 만족스러운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상대 파트너의 만족도도 더 높았다. 또한 상대 파트너가 자신을 더 많이 공감해준다고 지각할수록(자신의 관점을 고려해주고, 자신에게 더 관심이나 연민, 온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지각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관계만족도를 보고하였으며 상대 파트너의 만족도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관계만족도(DAS)를 예언하는데 있어 IRI 대비 IRICS, IRICO의 추가적인 설명력이 존재했으며, 추가적인 설명량 자체도 IRI에 비해 IRICS, IRICO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RICS 및 IRICO의 증분타당도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커플 관련 변인들을 예언하는데 있어 이자간 공감 척도(IRICS, IRICO)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 공감 척도(IRI) 대비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IRICS와 IRICO 간 차이가 관계만족도와 관련성을 보이는지 확인해본 결과, 개인의 IRICS 점수와 파트너의 IRICO 점수 간 차이는 상대 파트너의 관계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척도가 동일한 개인의 공감을 반영하지만 어느 정도 개별적이고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스로 보고하는 공감 수준과 실제 상대 파트너가 지각하는 수준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파트너의 평가에 비해 본인의 공감 수준을 더 높게 과대평가할수록, 즉 공감 격차가 클수록 파트너의 관계만족도는 더 낮았다. 실제로 커플 관계 속에서 공감의 자기중심성을 자각하고 상대 파트너의 지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다수의 치료적 접근에서 언급하는 바이기도 하다(김희진, 2005; 송정아, 1994; 최혜영 등, 1994). 이러한 공감 격차를 적절히 인식하고 조절한

다면 커플 관계에 적응적인 효과를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커플의 이자간 공감과 관계만족도 사이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녀 간 차이가 발견된다. 앞서 공시타당도 분석 시, 남성의 관계만족도는 IRICS가 IRICO보다 비교적 더 높은 상관을 보인 반면, 여성의 만족도는 IRICO가 IRICS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증분타당도 분석에서 본인 및 파트너의 관계만족도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남성은 IRICO보다 IRICS가, 여성은 IRICS보다 IRICO가 더 큰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남성은 '자신이 상대 여성 파트너를 얼마나 공감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관계만족도를 더 많이 예측하는 반면, 여성은 '상대 남성이 자신을 얼마나 공감해주는가에 대한 지각'이 더 주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더 나아가 남녀의 이러한 차이는 상대 파트너의 만족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성별에 따른 공감의 차이에 주목하였으며 해외 연구 및 국내 연구 다수가 남성과 여성의 공감에 차이가 있음을 지지하고 있다(Eisenberg & Lennon, 1983; Hall, 1978; Hoffman, 1977; 김복태, 2001; 김용희, 2007; 최현옥, 김혜리, 2010). Gottman(1999)에 의하면, 여성의 공감은 더 안정적이고 일정하며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남성은 더 변동이 심하며 독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Klein과 Hodges(2001)의 연구에서 공감 '능력(skill)' 자체는 남녀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공감을 하고자하는 '동기 수준(motivation)'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했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의 변동성, 독립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남성은 파트너 보다는 본인의 공감 수준에 대한 지각이 만족

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 양상이, 여성은 본인보다는 파트너의 공감 수준에 대한 지각이 만족도를 결정하는 연결성이 두드러져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IRICS 및 IRICO의 측정동일성 및 수렴, 변별, 공시, 증분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선행연구(Péloquin & Lafontaine, 2010)와 같이 중단 설계를 통해 예언타당도나 시간에 따른 척도의 안정성을 확인해 보지는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IRICS나 IRICO가 특정 시기에 측정된 점수가 일정 기간이 이후 커플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시간의 변화에도 측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IRICO와 같은 양자 관계 속 파트너-평정 척도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Busby & Gardner, 2008). 하나는 내부자 관점(insider perspective)이며, 다른 하나는 상호-평정자 관점(inter-rater perspective)이다. 전자는 해당 지표점수를 파트너의 속성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보고하는 주관적 지표로 해석하게 된다. 반면, 후자는 한 개인의 속성을 외부평정자가 평가한 객관적 지표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간명성을 확보하고 해석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대체로 전자의 관점을 취하였으나, 두 관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더욱 풍부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 참고문헌

김복태 (2001).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공감능력 및 성폭력 사건 지각의 차이. 사회과학연구논집, 27(3), 249-268.

김용희 (2007). 공감능력과 관련된 성격특성 및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3), 573-585.

김현주, 안현의 (2009). 공감능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용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157-174.

김희진 (2005). 결혼초기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긍정주의 심리치료 접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877-906.

박성희 (1994). 공감·공감적 이해. 서울: 원미사.

송정아 (1994). 중년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13-130.

이민식, 김중술 (1996). 부부적응척도(Dyadic Adjustment Scale)의 표준화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5(1), 129-140.

정경아, 김봉환 (2010). 성인애착, 공감능력 및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인간이해, 31(1), 89-104.

조현, 최승미, 오현주, 권정혜 (2011). 한국판 부부적응척도 단축형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655-670.

최현옥, 김혜리 (2010). 대학생의 마음읽기 능력과 공감하기-체계화하기 성향의 성차와 전공차.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1), 119-139.

최혜경, 노치영, 박의순 (1994). 결혼초기 부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171-180.

홍세희, 황매향, 이은설 (2005).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의 잠재평균분석. 교육심리연구, 19(4), 1159-1177.

Ariely, D., & Loewenstein, G. (2006). The heat of

- the moment: The effect of sexual arousal on sexual decision making.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9, 87-98
- Bailey, R. C., & Kelley, M. (1984). 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 in early, steady and engaged daters. *The Journal of Psychology*, 116, 39-43.
- Baron-Cohen, S., & Wheelwright, S. (2004). The empathy quotient: an investigation of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or high functioning autism, and normal sex difference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4, 163-175.
- Bernstein, W. M., & Davis, M. H. (1982). Perspective-taking, self-consciousness, and accuracy in person perception.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3, 1-19.
- Birchler, G. R., Weiss, R. L., & Vincent, J. P. (1975). Multimethod analysis of social reinforcement exchange between maritally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spouse and stranger dya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 349-360.
- Busby, D. M., & Gardner, B. C. (2008). How do I analyze thee? let me count the ways: Considering empathy in couple relationships using self and partner ratings. *Family Process*, 47, 229-242.
- Busby, D. M., Holman, T. B., & Taniguchi, N. (2001). RELATE: Relationship evaluation of the individual, family, cultural, and couple contexts. *Family Relations*, 50, 308-316.
- Cheung, G. W.,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 233-255.
- Cliffordson, C. (2001). Parents' judgments and students' self-judgments of empathy: The structure of empathy and agreement of judgments based on the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IRI).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7, 36-47.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103.
- Davis, M. H., Hull, J. G., Young, R. D., & Warren, G. G. (1987). Emotional reactions to dramatic film stimuli: The influence of cognitive and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26-133.
- Davis, M. H., & Oathout, H. A. (1987). Maintenance of satisfa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Empathy and relational compet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397-410.
- Eisenberg, N., & Lennon, R. (1983). Sex differences in empathy and related capacities. *Psychological Bulletin*, 94, 100-131.
- Fincham, F. D., Beach, S. R., & Baucom, D. H. (1987). Attribution processes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IV. Self-partner attribution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739-748.
- Gilhotra, J. (1993). The concepts of selfobject function and empathy in couples therapy.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27, 294-297.
- Gottman, J. M. (1999). *The marriage clinic: A scientifically-based marital therapy*. New York:

- W. W. Norton.
- Hall, J. A. (1978). Gender effects in decoding nonverbal cues. *Psychological Bulletin*, 85, 845-857.
- Hodgkins, M., Albert, D., & Daltroy, L. (1985). Comparing patients and their physicians' assessment of pain. *Pain*, 23, 273-277.
- Hoffman, M. L. (1984). Interaction of affect and cognition in empathy. In C. E. Izard, J. Kagan, & R. Zajonc (Eds.), *Emotions, cognition and behavior* (pp. 103-13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ffman, M. L. (1977). Sex differences in empathy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84, 712-722.
- Ickes, W. (2001). Measuring empathic accuracy. In J. A. Hall & F. J. Bernieri (Eds.), *Interpersonal sensitivity: Theory and measurement* (pp. 219-241). Mahwah, NJ: Erlbaum.
- Ickes, W., Gesn, P. R., & Graham, T. (2000). Gender differences in empathic accuracy: Differential ability or differential motivation?. *Personal Relationships*, 7, 95-109.
- Ickes, W., Stinson, L., Bissonnette, V., & Garcia, S. (1990). Naturalistic social cognition: Empathic accuracy in mixed-sex dya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730-742.
- John, O. P., & Robins, R. W. (1994). Accuracy and bias in self-perception: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enhancement and the role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206-219.
- Kappesser, J., Williams, A., & Prkachin, K. M. (2006). Testing two accounts of pain underestimation. *Pain*, 124, 109-116.
- Kenny, D. A., Kashy, D. A., & Cook, W. L. (2006). *Dyadic data analysis*. New York: Guilford Press.
- Kilpatrick, S. D., Bissonnette, V. L., & Rusbult, C. E. (2002). Empathic accuracy and accommodative behavior among newly married couples. *Personal Relationships*, 9, 369-393.
- Klein, K. J., & Hodges, S. D. (2001). Gender differences, motivation, and empathic accuracy: When it pays to understand.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720-730.
- Larson, J. H., Anderson, S. M., Holman, T. B., & Niemann, B. K. (1998).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premarital communication, relationship stability, and self-esteem on sexual satisfaction in the first year of marriage.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24, 193-206.
- Loewenstein, G. (1996). Out of control: Visceral influences on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65, 272-292.
- Loewenstein, G. (2005). Hot-cold empathy gaps and medical decision making. *Health Psychology*, 24, S49-S56.
- Long, E. C. J. (1990). Measuring dyadic perspective taking: Two scales for assessing perspective taking in marriage and similar dyad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0, 91-103.
- Long, E. C. J. (1993a). Maintaining a stable marriage: Perspective taking as a predictor of a propensity to divorce.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1, 121-138.
- Long, E. C. J. (1993b). Perspective taking differences between high and low adjustment marriages: Implication for those in

- intervention.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1, 248-260.
- Long, E. C. J., & Andrews, D. W. (1990). Perspective taking as a predictor of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26-131.
- Long, E. C. J., Angera, J. J., Carter, S. J., Nakamoto, M., & Kalso, M. (1999). Understanding the one you love: A longitudinal assessment of an empathy training program for couples in romantic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 48, 235-242.
- Markman, H. J., & Notarius, C. I. (1987). Coding marital and family interaction: Current status. In T. Jacob (Ed.), *Family interaction and psychopathology: Theories, methods, and findings*. New York: Plenum Press.
- Meredith, W. (1993). Measurement invariance, factor analysis and factorial invariance. *Psychometrika*, 58, 525-543.
- Miczko, N., Sergin, C., & Allspach, L. E. (2001). Relationship between nonverbal sensitivity, encoding, and relational satisfaction. *Communication Reports*, 14, 39-48.
- Murray, S. L., Holmes, J. G., & Griffin, D. W. (1996). The self-fulfilling nature of positive illusions in romantic relationships: Love is not blind, but presci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155-1180.
- Nordgren, L. F., Banas, K., & MacDonald, G. (2011). Empathy gaps for social pain: why people underestimate the pain of social suffer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 120-128.
- Nordgren, L. F., van Harreveld, F., & van der Pligt, J. (2009). The restraint bias: How the illusion of self-restraint promotes impulsive behavior. *Psychological Science*, 20, 1523-1528.
- Paleari, F. G., Regalia, C., & Fincham, F. (2005). Marital quality, forgiveness, empathy, and rumination: A longitudinal 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 368-378.
- Péloquin, K., & Lafontaine, M. F. (2010). Measuring empathy in couples: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for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2, 146-157.
- Pistrang, N., Picciotto, A., & Baker, C. (2001). The communication of empathy in couples during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 615-637.
- Rusbult, C. E., Lange, P. A., Wildschut, T., Yovetich, N. A., & Verette, J. (2000). Perceived superiority in close relationships: Why it exists and persis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521-545.
- Rusbult, C. E., Verette, J., Whitney, G. A., Slovick, L. F., & Lipkus, I. (1991). Accommodation processes in close relationships: Theory and preliminary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53-78.
- Saffrey, C., Bartholomew, K., Scharfe, E., Henderson, A. J., & Koopman, R. (2003). Self- and partner-perceptions of interpersonal problems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0, 117-139.
- Simpson, J. A., Orina, M. M., & Ickes, W. (2003). When accuracy hurts, and when it helps: A test of the empathic accuracy model

- in marital intera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881-893.
- Simpson, J. A., Ickes, W., & Blackstone, T. (1995). When the head protects the heart: Empathic accuracy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629.
-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5-28.
- Taylor, S. E., & Brown, J. (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Thomas, G., Fletcher, G. J., & Lange, C. (1997). On-line empathic accuracy in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839-850.
- Trommsdorff, G., & John, H. (1992). Decoding affective communicat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2, 41-55.
- Van Boven, L., Loewenstein, G., & Dunning, D. (2005). The illusion of courage in social predictions: Underestimating the impact of fear of embarrassment on other people.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96, 130-141.
- 1차원고접수 : 2017. 10. 24.  
심사통과접수 : 2017. 12. 16.  
최종원고접수 : 2017. 12. 21.

## Measuring Empathy in Couples: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Dyadic Empathic Scale

Ju-Yeal Lee

Department of Psychiatry  
Gil Medical Center, Gachon University

Young-H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dyadic empathic scale, measuring empathy expressed in couples. Therefore, we developed Korean version of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for Couples(IRIC). Especially, to improve and complement original IRIC, we made both self-reported version and other-rating version of IRIC(IRICS & IRICO). So we could construct dyadic data and examine the actor effect as well as the partner effect in couples. Married or dating 295 couples(N=590) completed Korean self-reported and other-rating version of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for Couples(IRICS & IRICO) and other measures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general empathy. As a results, a 2-factor structure and measurement invariance(between males and females & between married and dating group) of IRICS and IRICO was supported. Also, good convergent, discriminant, concurrent, and incremental validity as well as adequate internal consistency was showed. In conclusion, on the basis of above finding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 was proposed.

*Key words* : empathy, dyadic empathy, couple, dyadic data, actor effect, partner effect, reliability, validity